

평화드림5만리 참여후기

설레임반! 두려움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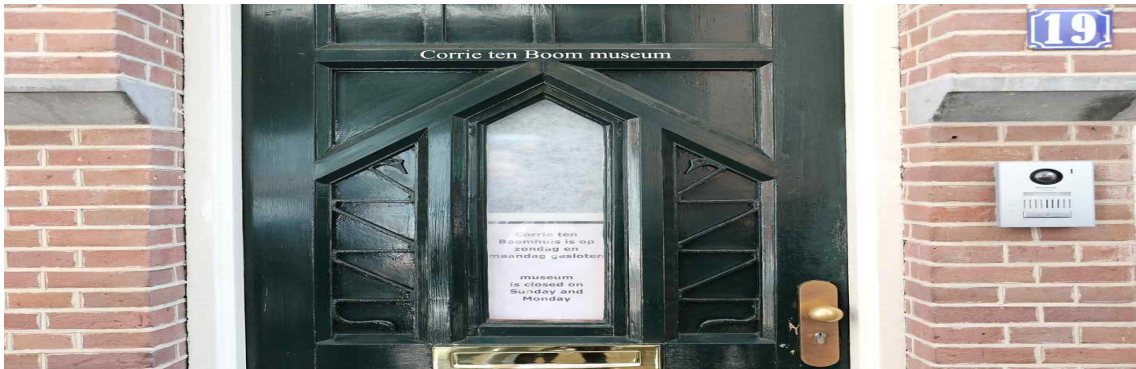
평화드림5만리 여정을 준비하는 내내 내 마음은 이랬다. 무엇보다 기독교 단체가 움직이는 일이고 해외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우리 일행들은 출발 100일을 앞두고 더욱 집중하여 작정기도도로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 전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단체 티가 잘 못 인쇄된 것이다. 하지만 감독님은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지인을 통해 신속하게 준비하게 하셨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조용한 경고 같았다. 인천공항서 출정예배를 드렸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라리’ 은희곤 감독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비행기로 올랐다.



오랜만의 비행탑승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들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이 가신 길 보다는 편한 것이라 생각을 고쳐먹고 기도하며 쪽잠을 자며 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밤하늘에서 바라본 두바이는 밤의 도시 같이 화려하고 향락과 우상숭배로 죄가 넘치는 로마시대를 떠올리게 했다. 부디 두바이가 악의 도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바이를 뒤로한 채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누가 네덜란드를 풍차의 도시라고 했던가 그 말처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넓고 평온한 들판과 잘 정비된 수로와 풍차였다.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굳어있던 육체가 풀어지고 힘들었던 비행 여정이 녹아내리듯 씻겨나가는 것 같아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곧바로 우리 일행은 암스테르담과 헤이그로 발길을 옮겼다.



안네 프랑크는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독일에서 당시 중립국이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사한 뒤 한 건물에서 761일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한다. 열세살 생일에 선물로 받은 일기장을 친구처럼 '키티'라는 이름을 불렀고, 1944년 8월 4일 주변의 신고로 발각되어 식구 모두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때까지 2년여 동안 은신처에서 <안네의 일기>를 썼다고 한다.



그 당시 안네는 언니와 함께 따로 이송되어 생을 마감한 독일 하노버의 베르겐벨젠 수용소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화드림5만리 팀은 담광장에 도착했다. 준비한 평화퍼포먼스를 하고 서명을 받았다. 아직은 처음이라 모두가 생소한 표정이었다. 내일부터는 이번 행로가 여행이라기보다 사명임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기대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네덜란드의 아침은 맑고 투명했고 상쾌했다. 아침식사 전 숙소 근처를 산책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다. 감독님 내외분의 가방이 사라진 것이다.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간 두 분이 가방을 의자에 두고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사람이 가방을 뉘아채간 것이다. 아차! 하는 순간 뒤 따라가셨으나 검은색 자가용은 금새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산책을 나가며 숙소 앞에 낯선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아마도 그 일당들이었던 것 같다.

감독님 내외분은 침착하고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 하셨고 팀원들이 이로 인해 신경 쓰지 않도록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이일로써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라는 생각이 들어 경각심을 잃지 않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일이 믿음의 작은 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면 여정에 많이 지장을 초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었다. 일 처리를 위해 3분을 남겨두고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야 했다. 버스안에서 경건의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는 이준열사 묘지에 도착했다.





이준열사를 알리기 위해 열강해주시는 여사님



비넨호프 호수광장



간단히 추모행사를 갖고 비넨호프 호수광장으로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학술행사를 위해 이준열사 기념관으로 또 이동을 했다. 이준열사는 고종의 특명을 받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 만국평화회의장(비넨호프)에 입성하려 하였으나 주변 강대국의 반대로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특명을 이루지 못하자 분개하여 자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할 일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준열사 개인으로 보면 최초의 검사로 학식 있고 덕망 있어 유유자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양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여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몸으로 실천한 훌륭한 믿음의 선조로 본받아야 할 점이 참 많은 분이셨다. 만약 그 시대에 내가 이준열사와 만났다면 그 분을 도와 열심히 애국활동을 했을 것 같다.



이준 교회 학술대회



다음날 우리는 독일하노버로 향했다. 독일은 도시가 형성되어가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 먼저 시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시청이 세워지고 그다음에는 교회가 세워져야한다고 한다. 유럽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즐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청년들에게는 기독교 정신이 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야 할 것이다. 하노버 중앙역에서 서명운동 퍼포먼스를 마치고 독일의 상처를 찾아가 보았다. 독일 사람들은 아픈 상처가 있던 자리를 없애지 않고 보존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치며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애도하고 애쓰다고 한다. 그 흔적의 자리에 우리 팀도 에기디엔 교회를 찾았다. 지붕은 아예 없고 여기 저기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교회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바닥에 표시된 글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다. 히로시마에서 '평화의 종'을 보내왔으나 그것이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내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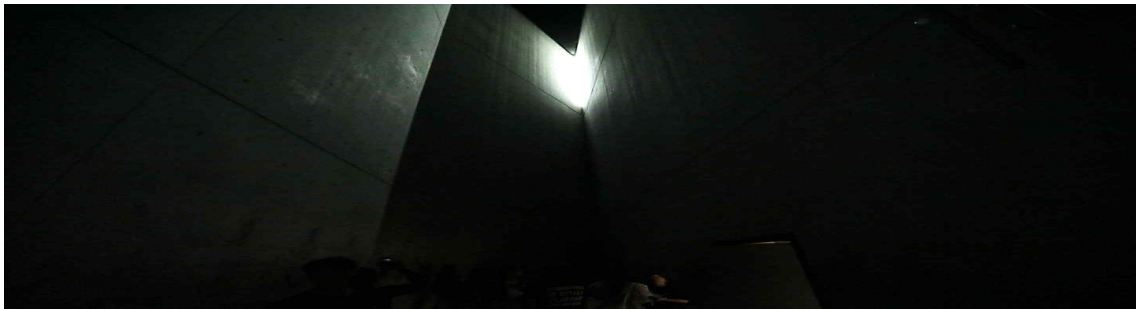
아래사진 지붕이 폭격된 상태의 에기디엔 교회 현재 모습





‘UNSEREN TOTEN 우리들의 죽음’ 이라는 뜻이다.

다음 여정을 위해 에기디엔 교회를 뒤로하고 우리는 베를린으로 이동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아파하는 자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한다는 아침 영의 양식을 먹으며 유대인박물관을 찾았다. 홀로코스트, 추방, 기억의 공백이라는 3축을 기반으로 박물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유대인들 학살 당시 그들이 당했던 공포와 불안 암울한 현실을 불균형과 어둠속의 빛등으로 표현했다. 끝없이 한줄기 빛을 하늘을 소망했던 그들의 심령을 헤아리며 창자가 끈어지도록 부르짖었던 그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때린다. 잠시지만 너무나 숨막히고 아픈 순간이었다. 그래서인지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박물관을 나왔을 때 한숨이 저절로 쉬어졌다. 아 살았다! 이런느낌.



우리는 곧 바로 돔광장으로 이동해서 서명 퍼포먼스를 했다. 날이 갈수록 평화드림5만리 팀원들은 서명받는 것에 불이 붙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한 모습이다. 나는 체력이 약하여 현수막을 들고 찬양으로 크게 부르짖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잠시 후 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간 뒤에 학술행사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안보와 독일통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김상국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셨다. 안된다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마음을 열어 조금씩 왕래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통일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 같았다.



바쁘고 빠듯한 일정으로 모두가 조금은 지쳐 있을 때다. 반가운 단비처럼 오늘은 오랜만에 늦잠을 잘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비텐베르크 궁성교회를 방문했다. 이곳은 성안에 있는 귀족들을 위한 교회이며 가까운 곳에 서민들을 위한 성 마리아 교회도 있었다. 궁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내용이 보존되고 있었고 마치 내가 그 시대로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외형도 잘 보존되어 있었다. 조금 걸어가면 루터 하우스와 루터 박물관이 보인다. 루터가 인정하고 사랑했던 카타리나 폰 보라 여인의 동상도 있었다.



궁성교회 95개조 반박문



루터박물관 내부(카타리나 폰 보라 배너사진)



루터하우스 마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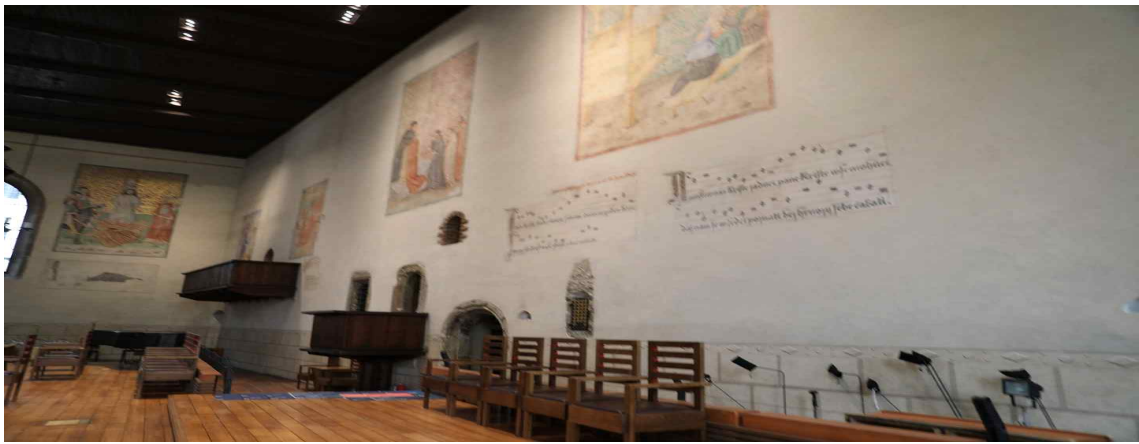


카타리나 폰 보라 동상과 함께

지금의 개신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루터!

고인물이 썩는다는 옛 말처럼 그것도 교회 안에서 중세 사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성직자들의 부패를 그냥 볼 수 없었던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정교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서너가지 죄를 지으므로 징계를 내리셨다. 믿지 않는 자들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타락으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만약 루터가 그 당시 95개조 반박문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보다 더 했을까? 순간 아찔해졌다. 하나님은 루터에게 이러한 안목과 지혜를 주시고 깨달게 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루터의 러브스토리 또한 감동이다. 종교개혁의 주동자로 신경도 날카롭고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것이 존경할만하다. 무지 박식하고 질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루터의 외모로 보아 한 여인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카타리 폰 보라의 매력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아무튼 둘이 죽고 못살 정도로 사랑하고 행복했다니 나도 입가의 미소가 끈이지 않는다. 내일은 프라하의 한인교회 광용화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곳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안후스 동상





프라하 다리

프라하 한인교회는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셨고 현지 분들도 계셨다.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예능선교를 많이 하신다고 하신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객용화 선교사님 안내로 모세 동상과 슈톨포 슈타인 추모비를 거쳐 프라하 광장에서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 진행 후 프라하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후스의 선교현장을 둘러보고 베들레헴 채플 옆 프로이트의 동상도 관람했다. 카를 4세는 위클라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가 죽은 후 종교개혁의 불길 번져갔다고 한다. 그 외 모차르트가 돈 조반니론 초연한 극장, 아마데우스 촬영한 곳, 카를 대학교를 관람했다.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을 잠시 가지며 카를교를 넘어 네포무크 신부 동상과 미션 임파서블 촬영지 등을 관람하며 아름다운 풍광을 감사하고 포토타임을 가졌다. 이 시간이 아마도 유일한 관광 시간이었던 것 같다. 풍광이 아름다워 집에 오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아쉬운마음을 뒤로한 채 다음날 아침 우리는 쿠라쿠르로 출발했다. 버스투어를 하는 날이다. 버스안에 8시간을 있었다. 차 안에서 북한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찬양 연습도 하고 긴 시간이지만 알차게 보낸 시간이었다. 날씨가 연일 너무 좋았다. 비가 자주오거나 많이 덥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덥지않은 날씨를 주관해 주셨다. 이게 웬일!!! 대박 사건!!! 드디어 평화서명 1000명 달성!!! 우리는 다같이 환호성을 질렀다.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 모두가 만들어낸 알 찬 결실이었다. 기분좋은 마무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었다. 내일은 우크라이나 구호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감독님과 몇분은 유엔 사무실에 우리가 서명한 것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우크라이나에 왕래하시는 곡용화 선교사님이 구호물품을 전달해 주시기로 하고 아침일찍 숙소로 찾아주셨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전해진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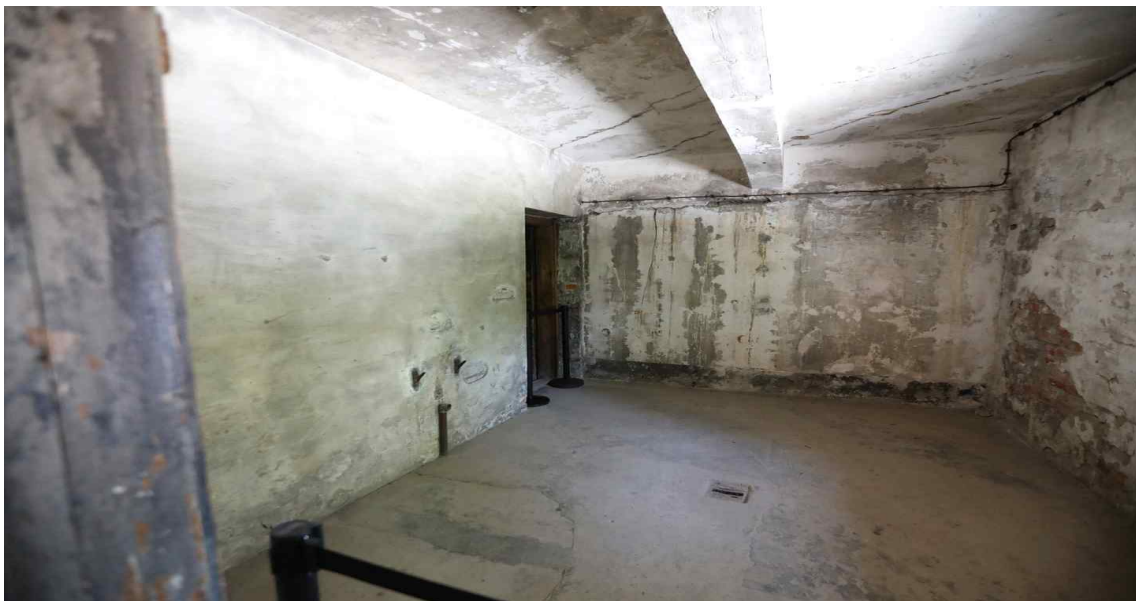




유엔에 서명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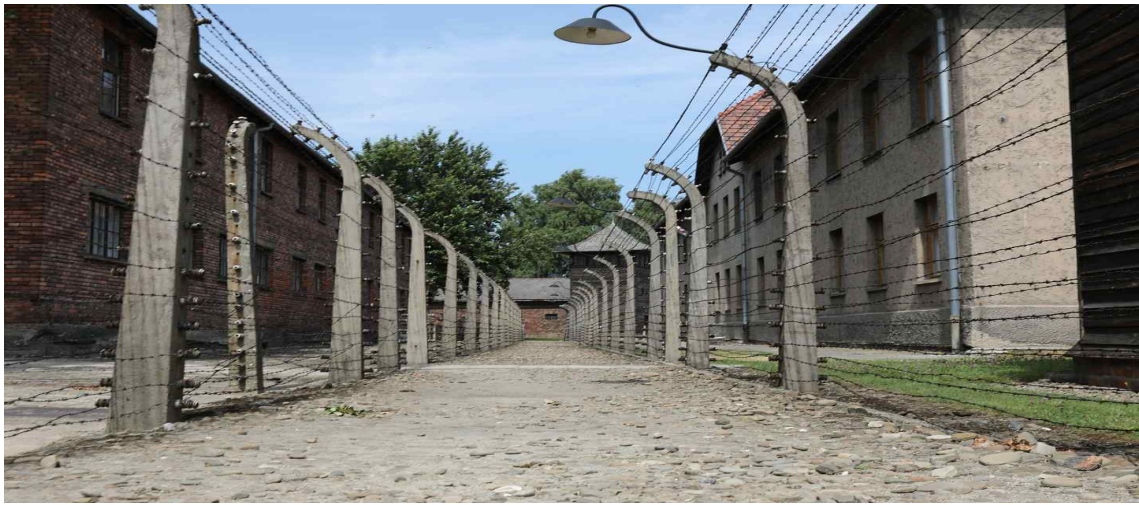


드리어 우리의 할 일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녀오게 되었다. 관람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 현장에 직접 와보니 더욱 울분이 터졌다. 어떻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많이 학살할 수 있을까? 내 머리로 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알려야 한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이 단들과 자기가 메시아하고 하는 많은 이들을 기도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해야 하고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이작은 공간에 200명가량 들어보냈다고 한다.

사람들을 가두고 온기가 올라갈 때 천장에 있는 구멍으로 약을 살포했다고 한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사람도 다치지 않고 불의한 일 당하지 않고 무사히 한국에 귀환했다. 해단식을 하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있을 행사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길 당부하며 8월에 있을 행사 때 만나기로 하고 해단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다.



며칠 뒤 뒤풀이를 하며 앞으로 보완할 일들과 8월 행사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길 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새로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 무언가를 해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기 위해 애썼고 부족한 것을 탓하기보다 채워 주고 싶어 했다. 사랑을 나눠 주려고 했고 섬기려 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직 믿음의 반열에 있지 못한 형제들도 있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악의는 없어 보였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들을 잘 다독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번 여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희망이 보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또는 지인들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방법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나 혼자서 아닌 다른 사람들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더 힘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하려 하면 안 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인 듯하다. 역사학회를 통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력하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다. 무엇보다 모두 건강하게 무탈히 다녀오게 하심에 다시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글을 마무리 짓는다.